



시사프리신문 1면

강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총 5건 의원발의 '눈길'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열린 제15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특히 이날 처리된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서울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열)에서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을 방문해 휴먼타운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는 등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영일기자

구청 주요사업추진현황 실시간 공개시스템 도입하라

구본승 강북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통합진보당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3월 7일 개최된 강북구의회 1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도입하자'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사업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청 주요사업추진현황 공개시스템 도입효과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 주요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견 댓글달기 기능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구청장, 국과별 직원, 구의회 의원들이 구정

이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본승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북구청 기획예산과는 '구본승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공약사업 외 구정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현황을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원활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키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서면답변했다.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강남연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은 지난 8일 10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긴급지원 후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실제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강남연 의원은 "우리구의 경우 2006년 4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돼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회 개최해 505개의 안전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로서 제정돼 긴급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한 목적을 밝혔다.

한편, 긴급지원사업이란 국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1개월간 생계유지

및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강 의원에 이번 조례 발의안은 1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됐다.

유영일기자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김도연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개최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서울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 조례는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강북구의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도연 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최고의 회사를 경영하는 빌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내가 태어난



작은 마을의 초라한 도서관이었다"며 "책을 통해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생활이 풍성해 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김도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 13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처리됐다.

유영일기자